

코로나 쇼크 “티 안나요”... 발빠른 대체 ‘티-웨이’ 먹혔다

✈️ 옥석 드러나는 LCC

⑤ 티웨이항공

창립 10주년, 업계 2~3위 성장
지난해 3분기부터 적자 지속
LCC 중에는 ‘최소 적자’ 선방

티웨이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업황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월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6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010년 단 2대의 항공기로 문을 연 티웨이항공은 그간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업계 2~3위를 다룰 정도로 지속 성장해왔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기준 수송한 전체 여객이 799만 9611명으로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시장점유율 약 17%를 나타내며,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티웨이항공 항공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제선 시장에서는 LCC 가운데 전체 여객 234만 3955명으로 2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홍근 대표는 지난달 1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항공산업의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다짐이 중요하다”며 “긴 호흡을 통한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소통과 조직의 유연한 변화, 다가올 미래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국내 LCC 업계에서 창립 이후 가장 단기간에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하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2018년 창립 8년 만에 코스피 상장으로 제2의 도약을 한 바 있다. 당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세 번째로 상장을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 중장거리 노선의 취항으로 전략 차별화에 나서려 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는

데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 국토부로부터 ▲인천-호주 시드니(1303석) ▲인천-팔라우(주 1회) ▲인천-키르기스스탄(주 2회) 등의 운수권을 배분받은 바 있다. 이미 지난 1월 중장거리 노선 운영을 위해 전사적 TFT를 구성했던 티웨이항공은 300석 이상의 중대형 항공기를 선정해 상반기 중 본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외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당초 취항하고 있던 국제선도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중형항공기의 도입 및 중장거리 노선의 취항은 업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국제선 중 지난달 20일 운항을 재개한 대구-엔지 노선만을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투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2분기 -258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3분기 -97억원 ▲4분기 -192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223억원, -48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적자가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른 항공사 대비 ‘최소 적자’를 내는 데 성공하며,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파가 본격화하며 국제선 대부분이 멈춰선 지난 2분기 기준 LCC(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제외) 가운데 가장 적은 손실을 냈다. 항공사별 영업손실은 ▲제주항공 -854억원 ▲진에어 -596억원 ▲에어부산 -514억원 등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는 국제선 중 대구-엔지 노선만 운항 중이다”며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에 대해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 등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다. 장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형항공기의 경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A330 기종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LG화학, 환경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환경안전 분야 ‘글로벌 스탠더드’ 수립
모든 사업장에 환경안전 기준 재정립

LG화학이 환경안전 분야에서 자사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립하고, 이를 전세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LG화학은 7일 전세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을 재정립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환경안전 강화대책’의 강력한 후속조치다.

현재 LG화학은 내년까지 중대 환경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사내 환경안전 및 공정기술 전문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M-Project(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LG화학은 전세계 사업장에 적용될 자사만의 환경안전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LG화학은 전세계 37개 사업장(국내 15개, 해외 22개)을 대상으로 고위험 공정 및 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 진단을 완료하고 총 590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LG화학은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올해만 총 810억원 규모의 환경안전 투자를 추가로 집행 중이다. 현재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행 중인 정밀 진단의 경우, 전세계 37개의 사업장 진단을 연내 모두 마칠 계획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국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해외 사업장은 화상 회의를 주관하는 등 국내외 전사업장의 긴급 진단을 직접 챙길 만큼 M-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진두진휘하고 있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폴란드 공장. (원형사진) 신학철 부회장

LG화학은 M-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안전 규정 체계 재정립 ▲마더팩토리 운영 ▲사고감지·예방 체계 구축 등 주요 실행 과제를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계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실시한 긴급 안전진단과, 연내 완료될 정밀 안전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사 환경안전 규정 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기존 규정체계 보완 및 기술지침 등을 제·개정 중이며, 외부 전문업체와 협업체를 통해 설계, 운전 노하우, 유지보수, 법규 등 환경안전 분야에서 총 25건의 개정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품 및 공정상 최고 기술 수준의 사업장을 ‘마더팩토리’로 선정해 분야별 BP(Best Practice) 사례를 전사업장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대상 선정 및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해당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현재 여수 및 대산 석유화학 공장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해, 해당 D

X(디지털 전환)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술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 및 단위 공장들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LG화학은 올 하반기 내 환경안전 예산 및 투자 관리의 주체를 각 사업본부에서 법인 환경안전 조직으로 변경한다. 전사 차원에서 환경안전분야의 조직 체계도 개선해, 사고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환경안전 분야에만 총 2350억원의 투자를 집행 중인 가운데, 특히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국내외 환경안전 관련 조직 재정비에 집중해 모든 사업활동에 환경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영방침이 전 조직에서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최근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환경 안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며 “안전하지 않으면 가동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준비해 온 고강도 환경안전 정책을 전세계 사업장에 체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건조기 판매 30% ‘트롬 워시타워’

일체형 원바디로 공간효율성 각광

LG 트롬 워시타워(사진)가 의류관리 가전 시장에 주류로 떠올랐다.

LG전자는 5월부터 최근까지 트롬 워시타워 판매량이 자사 건조기 국내 판매량 30%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세탁과 건조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면서 일체형 원바디 디자인인 워시타워의 뛰어난 공간 효율성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팀 기능도 성장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건조기 판매량 중 80% 이상이 트루스팀을 적용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또 스팀 타워는 별도 받침대가 필요



없고 높이도 낮다. 필터 관리도 편리하며, ‘원바디 린드 리 컨트롤’로 조작도 쉽게 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원바디 디자인은 물론 트루스팀, 대용량, 뛰어난 공간 효율성을 갖춘 일체형세탁건조기 워시타워가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아시아나항공, 인천-청두 노선 운항재개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충칭·난징에 이어 충칭·청두 노선까지 운항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일 인천-청두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을 중단한 지 5개월만이다. 인천-청두 노선은 인천-창춘, 인천-난징 노선에 이어 한·중 노선 가운데 세 번째로 재개된다. 주 1회 목요일 오후 10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해, 다음날 오전 2시 15분 청두에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중간 노선 증편을 위해 중국 민항국과 적극 협의하며, 운항 재개 허가 방안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비즈니스 고객과 교민,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 수송을 위해 전사적으로 증편에 총력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다한 결과 이번 인천-청두 노선 운항 허가를 받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 국가간 필수 인력 교류 및 무역 수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한·중 노선 운항 확대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인천-충칭 노선 전세계 운항 허가를 받아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주 1회 항공기를 운항한다.

/김수지 기자